

성 폭행 여성의 실절(失節) 의미화와 적응 행태

이 순 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한국의 유교문화적 전통에서 성 폭행은 신체적 폭행과 달리 실절로 의미화될 수 있다. 성 폭행을 실절로 의미화한 여성은 성 폭행당한 후 적응 곤란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전통 가족의 적처권을 비롯한 부부관계에서 형성된 여성관 및 이중적 성 의식은 현대인의 성 의식에 잔존해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러한 이중적 성 의식이 성폭행을 실절로 의미화하고 그러한 의미해석에 따라서 실절후의 적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되었다. 여성단체들이 보고한 58사례를 통해서 이 가정을 살펴보았다. 성폭행을 실절로 인지하고 자신의 결함으로 해석한 여성은 인지적 판단의 혼란과 부적응을 더 겪었다. 성폭행을 실절로 인지했어도 그것을 가해자의 악행으로 해석한 여성은 불운을 탓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가족원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화도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적응 곤란을 겪었다.

핵심어 : 성 폭행·실절·성의식·이중 기준

I. 문제 제기

인류가 존속한 이래 어느 사회에서든 성 문제는 존재해 왔다. 성 문제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의 해소 때문에 유발된다는 점에는 공통적이거나 성 문제의 양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 사회의 구조나 사회가 지향하는 문화와 규범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드를 비롯한 인류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다양한 문화를 지닌 종족이 존재하며 이들의 성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말하자면 성문제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처럼 유교적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는 성 폭행은 신체적 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잃고 절의(節義)를 잃었다는 실절(失節)로 의미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회는 근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성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유발되었던 성 폭행이 이제 비로소 노출되고 있는지 아니면 산업화 및 도시화로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성문제가 더 유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도, 이미 한국사회의 성 문제는 그 문제의 종류나 문제의 수준에서 구미의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성

문제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능가하고 있다. 우선 의붓아버지로부터 십 이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해 온 딸이 대학생이 되어 남자 친구와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김진관사건, 딸을 강간한 남자가 수십 년 동안 동거하면서 평생 딸의 노동력을 수탈하고 폭행하는 것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그를 살해한 사건, 21년전 9세에 동네사람에게 당한 성폭행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을 살해한 김부남사건, 소녀가장을 한 마을에 사는 십 수명의 남자들이 번갈아 성폭행해 그를 견디다 못한 소녀가 자살한 사건, 유치원 원장이 수십 명의 원아를 성폭행한 안산사건 등 최근에 노출된 성 문제는 근래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성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사건은 내용은 다르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성폭행에서 가해자는 남성이고 그 피해자는 여성이나 아동 등 약자라는 점이다. 성폭행에서도 신체적 폭행에서도 같이 강자가 약자를 폭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사건들이 일상적으로 성 문제에 대해서 예상되는 바를 넘어선 사건이라는 점이며 이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남녀간의 성 문제는 상대의 신체적 매력에 이끌려 유발되며, 일시적 욕구에 의해서 저질러진 순간적 범행이었음을 가정하지만, 위 사건들은 모두 그 가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 가정은 성폭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었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가정을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연상하듯이 성폭력에는 상대의 신체적 매력이라든가 그 상황의 정감성이라든가하여 어떠한 감상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내재된 요인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에는 그러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오히려 인간의 수성(獸性)만을 들여다 보

게 하는 사건들인데 그것을 보고 연구자들조차도 좌절을 느낀다.

어린 이붓딸을 상습적으로 상간했는데도, 그의 어머니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다면서 딸에게 참으라고만 말해 왔다고 한다. 근친상간으로 인륜을 범한 문제라는데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륜 이전에 자기 의지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두 여자를 한 가정에서 십여년 동안 피해자로 삼았다는 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강간으로 정절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그 남자에게 평생동안 폭력과 수탈에 시달리는 딸의 처지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그 남자를 살해했다는 사건에서나,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이 주일이내에 십 여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중학교 다니는 어린 소녀를 강간해 자살을 기도하도록 했다는 사건에서도, 약육강식의 수탈자의 얼굴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이 동물세계에서의 수탈자보다 더 교활한 범죄자인 까닭은 여성이 실절하여 스스로 절망하고 자존감을 잃고 자포자기해서 가해자의 요구를 상습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절망한 동물을 먹이감으로 쉽게 사냥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실절로 도덕적 절망을 유발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가해자는 쉽게 절망할 대상을 찾아 나서고 용케도 그들의 약점을 공격했다.

성폭행으로 인하여 여성은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원망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 자신의 자존을 회복하기 어렵고 상처받은 존재감은 평생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구에서도 동일하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 침입받고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건강한 인간으로서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속한 문화가 순결과 정절을 목숨처럼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절망을 강화시키고 그러한 수탈에서 벗어

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초등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 당한 성폭행으로 인해 일체 남녀간의 애정은 물론 결혼까지도 포기한 여자가 이십 여년만에 가해자를 살해한 것을 통해서 그가 인생의 실패 원인을 어디에 귀인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 성폭행 사건이 가해자에게는 한 순간 사냥경기와 오락으로 간주될 지 모르나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고 내던져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서양에서도 성폭행을 일반 폭력보다도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진다.

성폭행당한 여성들은 가해자에게서만 좌절을 겪는 것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찰 등 제도상의 편견과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에 심리적으로 심각한 좌절을 겪는다(정종숙, 1992, 21). 피해여성이 법적 제도권에 들어서면서도 한 번 제도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만다. 일반 성행동과 성폭력을 구분짓는 것은 피해자인 여성의 동기와 그것에 대한 인지였다. 폭력을 가하고 받은 상황은 인정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도 저항하지 않은 것은 짐짓 여성이 그 행위를 원했는지가 의문시되었다. 이것은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몇 번이고 똑같은 피해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¹⁾ 검찰과 법관들도 대부분 남성이다. 이들은 신체적 폭력을 주고 받은 범죄에서는 양쪽의 경우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면서도 일단 성폭행의 문제에서는 남성의 일방적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흔들리는 병' 운운 하는 사고에는 이러한 남성들의 편견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법관들은 저항한 흔적이 없다면 기소된 가해자를 풀어준 사례도 있다(신윤옥, 1992, 12). 아무리 여성이 극도의 공포와 수치를 경험한 피해자라고 말해도 남성들의 이러한 편견

을 불식하기 어려워 결국 처음에는 한 남성의 성폭력을 당하고 나중에는 사회집단의 편견으로부터 제도적 폭력을 당하게 되어 피해여성은 이중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성폭행 당한 여성에게 주변인의 편견과 오도된 의식은 이중의 좌절을 안겨준다. 무엇보다도 여성 자신의 좌절을 증폭시키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절의에 대한 의식이다. 일반 폭력과 달리 성폭력은 그 집단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결부된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성적 주체는 대상이든 자신의 내적 가치와 도덕적 존재로서의 자존감과 이를 관련해 생각한다. 전자의 경우는 가해자는 타인을 공격해 그의 고통을 즐기는 습관성을,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와 고통을 수용할 것이 우려된다. 후자의 경우에 가해자는 타인과 강제로 성적 결합을 통해서 상대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도록 하는 반인륜적 공격행동을 한 사람이다. 비교적 성적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고 회자하는 사회에서도 강요된 성적 결합으로 인한 심리적 상해는 장기간 치유를 요구하는 문제거나 어떤 경우는 치유되지 않은 문제를 남긴다.

II.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실절의 의미

성문제는 사회의 규범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규범은 근간이 되는 몇 가지 원칙에 입각해 기능했다. 그 원칙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폐쇄성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특정 신분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서 폐쇄적 원칙이 설정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폐쇄성 원칙의 실패로 어느 사회에서든 신분

1) 사례5에서 28세인 여성은 한의사인 남편과 결혼하여 남편과 시부로부터 혼수예물과 관련해 폭행을 당했는데 다른 여자와 교제하여 아이까지 출산한 남편을 고소했다. 남편은 피해여성을 정신병자로 몰아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성은 수사관에게 심지어 일곱 번이나 남편의 변태행동을 반복 진술했어야 했다.

이 낮은 남자가 신분이 높은 여자와의 혼인은 금지되었다. 혈통의 순수성을 고수하는 것은 적통을 유지하려는 명분을 세우는 것이나 실제로는 신분이 높은 여자가 낳은 아이의 신분이 보장되면 결국 그 집단에 다른 집단의 성원이 유입되어 수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던 것이다.

1. 조선조 적처권의 사회적 보장

조선사회에서 적처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대우받았는지는 조선사회의 이혼사태를 분석한 연구자의 논문(1996a)에서도 나타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외에는 나머지 여섯가지 조건으로 이혼당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이혼을 청했던 남편이 곤장 80대를 맞거나 유배당했거나 했으며, 그후에도 조종의 합가 명령으로 적처를 집에 두어야 했고 적처의 권한을 보장해야 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적처가 무자로 인하여 이혼당한 경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조선조 중기에 첩의 아들인 서얼을 승중(承重)하여 서얼의 입지를 벗어나게 조치한 경우가 있었고 후기에는 서자가 있더라도 양자를 들여 대를 잇게 했다. 이는 적처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한 것으로 그 어느 사회에서도 이처럼 다른 아내의 입지가 취약한 사회는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조 남성의 성을 언급할 때에는 양반인 남성이 합법적으로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릴 수 있고 기생을 가까이 하거나 천첩을 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남성은 성을 누렸다고 한다. 양반은 첩을 통해 자녀 출산과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현대, 이것도 엄밀히 보면 반드시 남성의 여성 지배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남자는 자손으로 집안의 명맥을 이어야 하는 가문주의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자신의 의사와 관

계없이 집에서 정한 아내와 혼인하고 부모가 정한 길일에 아내와 관계해 자녀를 낳아야 했다. 조선의 남편들과 아내의 관계는 법도로 맺어진 사이였다. 부부관계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남편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는 배제되었다. 남성들은 첩을 통해서 성적 만족을 추구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아내와 결혼하고 첩과 사랑을 나눈다”는 말(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199 4,397)이 단적으로 이를 시사해 준다고 보겠다. 적처와 첩과의 관계가 이처럼 구분된 것은 이후의 남성들이 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을 형성해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

적처의 소생은 자신의 가문을 잇는 종자(宗子)로서 혈통상 적자로서 결합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이 때문에 처의 순결과 정절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가문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처의 혼전 순결과 정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첩과의 관계에서는 소생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첩과의 소생은 성적 행동의 부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선조 내내 유지되어온 사대부들의 적귀서천(嫡貴庶賤)의 사고는 이러한 혼인관계에 대한 차별의식에서 온 것이다. 즉 법적으로 맺어진 적처와의 소생인 적손은 봉사손(奉祀孫)으로 귀한 존재이나, 사랑과 성의 소생인 서자는 그 연원이 속되어 천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적귀서천의 생각은 남성들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을 천하게 생각하고 그들과의 소생을 천하게 여겨 결국 여성이 성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천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성들이 한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듯 여성들은 한 지아비에게 정조를 바쳐야만 했다. 열(烈)은 여성에게 강조되고 남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러한 성의 이중성은 조선 중기 이후에 엄격히 지켜져 왔다. 반상의 높은 신분의 벽이 있어서 양반의 여자와 천민의 남자와는 성적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양반인 남자와 천민여자와의 성적 접촉은 실제로 허용되었다. 중처(重妻)는 금지되었으나 취첩(就妾)은 허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의 성 접촉 허용의 이중성은 현대인의 성에 대한 의식에 잔존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적처권의 보장은 제도적으로 가족을 유지하게 해주는 순기능을 수행했다면 성에 대한 이중기준을 형성하도록 한 역기능을 만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순결과 정절은 중시되지만 남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다. 기성세대의 인식 속에 아내의 혼전 순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반해서, 남성의 혼전 순결은 그렇지 않다는 것, 남자의 의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여자의 의도는 크게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는 인식 등이 그러하다. 심지어 '영웅은 호걸'이라는 말처럼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유능함의 지표인 양 생각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또한 남자는 연애를 해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결국 적처와 그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여자와 그와의 소생을 회생시키는 경우가 잦았다. 현대의 서구적 애정관으로서는 설명될 수 없고 전통적 의식으로만 설명되는 부분이다.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버릴 수 없다는 인식은 조선조부터 전해 온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남만적 애정관과 전통적 애정관은 한국 남성에게 공존하는데 이러한 역설적 사실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신세대에게서도 보여진다.

교제하는 여성과 혼인할 여성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여자 이전에 아내는 '내 아이의 어머니'로 평가되는 것이다.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리는 여성상과 자녀의 어머니로서 혼인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인데, 아내란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의식은 전통사회에서의 적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랑스런 여자와 현명한 어머니는 다를 것이라는 사고는 연애대상과 혼인대상의 차별화로 나타나는 듯하다. 이중성은 성에 대한 태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성욕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합법적 결합이 아니라면, 천하게 간주된다. 남성의 성욕도 그런데 여성이 성적 욕구는 더욱 더 천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은 어디까지나 성적으로 소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과 인천에 있는 4년제 대학의 대학생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성의 이중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의 13.5%, 경험 유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람의 22.7%가 성에 대한 이중기준을 가지고 있다. 여학생들도 20% 이상이 성에 대한 이중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순형, 1996b).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발산했다고만 생각하여, 극기하지 못한 자신을 책하게 되고 자신과 더불어 성관계를 맺은 대상을 경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이중적 의식으로 인한 왜곡 사례²⁾이다.

남성들의 이중적 성 의식은 여성들의 성 의식에도 혼란을 가져 왔다. 위에서 보듯 여학생들의 이중 기준이 남학생들보다 현저히 빈번하게 보고되는 것은 바로 여성들의 혼란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개가를 금지한 사회 규범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억압해 온 어머니들이 역시 딸들에게 성욕을 억압하도록 가르쳤으며, 혼인한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를 자손의 출산관계에 한정해서만 규정지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남자들의 자유분방함을 용납하도록 딸과 며느리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다산(多産)은 곧 왕성한 가세(家勢)

2) 내 친구 H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성관계를 가지고는 성격이 안맞는다고 헤어졌다. 내가 알기로도 여러 번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3학년 남학생)

를 나타낸다고 보았기 때문에 남성은 많은 자손을 임신시키고 그의 성장을 통해 집안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임무로 생각하도록 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것은 능력 있는 남자로 정당화되는 일면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많은 남자를 거느린 여자는 음란하고 천한 여자로 공개적으로 매도되곤 했다(이순형, 1996b).

위에서 보듯이 한국사회는 문화적 전통에서 서구와 다를 뿐 아니라, 가까운 일본과도 다르다. 그 차이의 중요한 특성은 성에 대한 관념과 성 행동에 대한 해석체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혼인의 의미와 실제 혼인 후 역할 수행자의 위상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는 과거사의 인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성과 생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대인의 성과 그 상징체계의 해석을 이해하려면 그 사회문화의 전통적 의미체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한국인의 실절에 대한 의미 해석

조선조에는 정절을 지킨 여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열녀문을 세워주고 포상했으므로 자손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반면에 개가한 여성의 자손은 일정한 직책 이상의 벼슬에 기용하지 못하도록 경국대전에 못박았다. 개가녀의 자손이 벼슬 길에 오르지 못할 정도인 사회에서 여성이 실절(失節)했다는 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다. 실절녀에게는 왜 죽음으로써 자신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는가라는 비난을 받음과 동시에, 집안의 수치로 여겨져 그 스스로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실절한 여성의 상당수가 자살하게 되는 이유가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자존감의 훼손도 있지만 이러한 주변의 압력 때문이었을 것이다(이순형, 1996b).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들이 병자호란으로 포로로 잡혀 갔다가 돌아왔을 때 실절했을 지도 모른

다는 의혹만으로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조선조에 여성의 실절은 유학의 영향으로 사회제도가 유학적 명분으로 강화되면서 더욱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당시 사회가 충과 효, 그리고 정절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 사고의 편협되고 경직됨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나 폭력을 앞세운 위기상황에서 여성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닐 때에도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는 것은 잔인한 집단압력이다. 이러한 집단 압력도 결국 가부장 제도가 만든 문화적 소산이다.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의 실절을 몇 가지로 더욱 회복되기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 낸다.

첫째, 실절은 여성에게 자신의 자유 의지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 자책감과 무력감을 준다. 둘째, 실절을 여성 자신이 입으로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실제 마음속으로는 원했기 때문에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부터 경찰과 검찰은 물론 법조인까지도 여성의 이중성이 있지 않은가를 의심한다. 심적으로 허약한 처지에 놓인 여성이 그들의 의혹과 편견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지 피해자가 겪을 어려움은 자명하다 하겠다. 셋째, 여성이 폭력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관계에서 성폭력을 즐기지 않았는가하는 의혹을 받는다. 심지어 그러한 성폭력을 유도했다는 의혹까지를 받는다. 피해자인 여성은 끊임없이 그 폭력으로부터 자신이 패락을 느끼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하는 형벌을 받는다.

넷째, 피해 여성은 이번 뿐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러한 일을 당해왔으며 그녀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하도록 남자를 만든다는 의혹까지도 받는다. 상습적 성 폭행을 한 남자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여성이 상습적으로 성 폭행을 받았지 않았는가를 의심하므로 피해 여성은 끊임없이 자신이 정신적 순결성을 주장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심문을 당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

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의 흔적 때문에 생긴 것이다. 성 폭력도 폭력의 하나이다. 폭행을 가한 사람이 당한 사람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말이다. 폭행을 당한 자에게 너는 왜 힘이 없고 약해서 남의 폭력에 희생자가 되느냐고 따지는 것이 말이 안되듯이, 여성이 왜 성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느냐고 탓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

III. 성폭행 여성의 의미화와 적응

성 폭행에 대한 의미 해석은 누가 가해자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가족원인지 가족원 이외의 사람에게서 성 폭행을 당했는지에 따라서 의미 해석과 그 영향이 다를 것이므로 두 가지 경우를 달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기존의 여성 단체들이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조사한 사례 58개를 통해서, 여성이 실절에 대해 어떻게 적응양상이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 인용된 사례의 출처는 한국여성단체연합(1992)(사례1-사례25), 한국여성개발원(1994)(사례26-사례44), 성폭력상담소(1995a)(사례45-사례50), 한국여성의 전화(1995)(사례51-사례56), 한국성폭력상담소(1995b)(사례57,58)이다.

1. 가해자가 외부인인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여성이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의미 해석체계가 중요하

다. 개인이 지각한 상징의 의미체계는 그의 적응 행태를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문화권에서 실절은 남성에게는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고 여성에게는 바로 존재 자체의 부정을 의미했다. 곧 실절이 죽음과 다를 바 없이 여겨온 전통적 의식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어서 사람들의 성 의식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문화 속에서 성장한 여인이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그가 겪었을 자존의 파괴는 다른 문화권의 여성보다 심각하게 인격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 대부분이 심각한 훼손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통적으로 순결이 강조된 사회에서 여성들은 순결을 잃고나면 절망하여 자포자기하게 될 것이다. 순결에 대한 의미를 신체적 순결로 해석하고 있던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을 때에는 실절로 의미화한다. 실절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죽음으로 해석되어 이후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강간당한 이들이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사례40)³⁾ 특히 어린 시절에 성에 대해 무지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성인들의 폭력에 당했다면 이 여성의 성장 후 성에 대한 의미체계는 엄청나게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성적 행동에 왜곡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모르고 당한 강간에서 이후의 남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혼인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폭력자에 대한 증오심이 남성에 대한 증오감으로 일반화되어 성적 불감증을 겪게 될 뿐 아니라 결혼 관계에서 성적 부작용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3) 건설현장에 나가 다니는 아버지와 떨어져 살던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에 다리를 다쳐 기부스하고 있다가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반복해서 당했다. 어머니도 같은 일을 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사춘기에 이르러 자신이 더러운 여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되었다. 결혼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딸을 낳고 살지만 부부관계를 거절하다가 부부불화로 친정에 가 있다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동생에게 사연을 말한 즉 집안은 쑥밭이 되었다. 여동생은 충격으로 유산을 했고 남동생은 가해자를 죽이겠다고 갔다가 폭행죄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수 있다.(사례40, 사례54)⁴⁾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혼인관계의 유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인격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다. 본인의 성격적 견고성이, 개인차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허약한 성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실질은 인격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참조집단의 의미 해석

실질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개인이 그것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가족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가운데 부모는 특히 중요한 참조 자원이다. 부모가 성폭행을 일발 폭력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적응에 어려움이 적을 수 있다. 부모의 해석체계는 곧 여성의 실질에 대한 해석을 변화시켜 그녀 자신의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모가 경직된 전통적 해석체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의 의미 해석체계와 여성 자신의 의미 해석체계를 동화시켜 결과적으로 여성이 적응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비단 부모뿐 아니라 친구, 애인 등 주변의 의미있는 사람들의 의미해석체계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애인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당한 위기에 처한 여성을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문제의 해결이 손쉽다는 사례(사례47)⁵⁾도 알려졌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사회기관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사회기관은 여성 개인의 의미해석 체계를 분석하고 그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 자신의 실질은 본인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우연히 못된 자들의 폭력에 희생이 된 것뿐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 원인이 자신의 탓이 아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 때문에 죄를 받아야 한다는 죄책감이나 자책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체계의 해석이 달라지면 그의 적응행동도 변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성폭력상담소 등의 사회기관이 근거리 지원과 원거리에서 지원한 사례도 있다. 근거리 지원 사례는 동네 놀이터에서 24세 무직이고 미성년자 강간 전과자인 사람에게 9세, 11세 여아가 강간을 당한 후 그 사건이 접수된 사례(사례45)⁶⁾와 친구들과 동산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의 사례(사례46)⁷⁾에 실시되었다. 원거리 지원의 사례(사례50)⁸⁾도 보고되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폭행에 대해서 자신과 분리해서 받아들였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수사관의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제도적 폭력의 하나로 받아들였다. 이 여성은 돈으로 해결하자는 피해자의 형의 태도에 분노했으며, 이들에게 끝까지 투쟁하여

- 4) 중학교 3학년 때 열 살 위인 삼촌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집안 사람 누구와도 의논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견디다 못해 고3때 가출했다. 집은 나간지 8년 동안 방황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남매를 낳고 살지만 남편과 부부관계를 가지려 하면 삼촌의 얼굴이 떠올라 죽고만 싶고 어려운 나를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도 삼촌 얼굴만 보면 죽고 싶다. (한국여성의 전화, 1995, 148-149)
- 5) 실내장식가인 31세 여성이 애인이 소개한 부동산전문가와 출장길에 나섰다가 술에 취한 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할 뻔 했다.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한 여성은 애인에게 말했고 애인을 위기센터에 고발했다. 의사의 진단결과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여성은 애인에게 감사하면서도 내심 이 일로 인해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같이 상담을 받아 애인도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어 그 불안은 해소되었다.
- 6) 9세여아와 11세 여아가 동네 놀이터에서 24세인 무직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전과자인 남자에게 차례로 말성폭행을 당했다. 말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에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을 어린 동생이 어머니에게 말해서 어머니가 위기센터에 신고해 경찰에 의해 범인이 검거되었다.

정의를 가르치겠다고 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자신도 봉사자로 일하겠다고 결심하고 자원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사회기관의 의미 해석을 듣고 새롭게 자신의 실절 의미화를 수정하고 불행한 사태와 대면하여 개인적 제도적 폭력과 맞서 싸움으로써 해결하는 건강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2) 성 폭행 피해 여성의 의미 해석

한 사상에 대해 개인은 다양한 맥락으로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의 지각과 의미 해석은 이후의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앞에서는 논의되었다. 성 폭행은 실절로 의미화되고 그 실절을 여성 개인의 기질적 결함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지나쳐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성 폭행이 자신의 부주의로 해석할 때에 이 사건으로 자신이 생활에 대한 통제 불능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성폭행의 피해자들은 이미 쓸모없는 사람, 손상된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자신을 규정한다고 보고되었다(한국여성의 전화, 1995, 144).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자신이 스스로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스스로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이 때문에 불면을 비롯한 정서 불안증과 심한 자책으로 인한 심리적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처음에는 대체로 차분하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던 피해자들도 병원에 가서 증거를 채취하고 난 후에 임신이나 에이즈 등 성병의 위험이 사라지고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비로소 울음과 불안감을 호소한다(사례46,49)⁹⁾. 자신의 경험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마치 그러한 자신이 사고의 유발자로서 스스로 비난하기도 하는데 사회기관에서는 자신이 사고 유발자가 아님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한국여성의 전화, 1995, 144).

반면에 성 폭행이 실절로 의미화되어도 그것이 타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악행이라고 해석할 때 자신의 불운을 탓할 뿐 심각한 자책행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러한 불운한 경험을 잊고 싶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 폭력문제를 사회 문제화하는 어떤 모임이든 나가서 자신의 사례를 노출시키는 일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자신뿐 아니라 사회에서조차도 그 일을 잊어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성 폭행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기를 기대할 것이다.(사례53, 사례55)¹⁰⁾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이사를 하고 직장을 옮기거나 결혼을 서두르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그나마 완전한 해결 방식이 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혼 후 성적 불감증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13)¹¹⁾ 김부남씨는 이혼을 당한후 극도의 정신적 불안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다녀야 했으며 가해자를 살해하기 2해전까지 육법 전서를 뒤적이고 법적 해결을 모색했으나 정신질환이 더 악화되어 가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7) 28세인 기혼 여성이 친구 2명과 함께 동산을 갔다가 팔과지팡이를 휘두르는 남자가 친구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후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친구들은 성 폭행으로부터 친구를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을 후회하고 미안해했다. 친구들이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으며 성 상담을 수차례 거쳐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 8) 대학 졸업후 발령 대기 중인 24세 미혼여성이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가 영세양식업자에게 강간 치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 일이 있은 후 30분이 되지 않아서 연락을 받은 위기센터에서 지킴이는 성병 예방과 임신 예방을 비롯한 증거 채취를 위해서 병원에 갈 것과 경찰에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경찰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경찰의 교육적 인사와 수사관의 비협조적 태도에 상처받지 않도록 조언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 9)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귀가하였다가 급히 문을 두드리면서 불일이 있다고 한 신원 미상의 30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귀가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아버지가 위기센터에 신고했다.

또한 성폭행을 사회적 문제로 해석할 때에는 자신의 문제를 폭로하여 사회적 경종을 불러 일으키고 성폭력 방지 제도를 마련하는데 스스로 도움을 주려할 것이다.(사례50) 자신의 문제로 갈등하다가 성폭행 문제를 노출시키고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많은 시선을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숨겨진 사회문제를 노출시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기도 했다. 그러나 일단 어느 시기가 되면 자기 스스로 그러한 체험이 주는 그 끝없는 절망에 빠져 들어 우울증을 경험하여 병원에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사례13)

이상에서 보듯이 성폭행은 여성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행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족원에 의해서 저질러진 성폭행의 경우라 하겠다.

2. 가해자가 가족원인 경우

많은 경우에 가해자는 가족원 이외의 사람이지만 가족원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 성폭력상담소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가족원에 의한 성폭행이 성폭력 상담건수의 20%에 해당한다. 이에서 보듯이 가족내 성폭력, 근친상간은 드문 사건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18세 미만의 아동의 10%가 가족에 의해서 성폭행당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근친상간의 경우는 주로 딸을 생부나 외부가 폭행하는 경우로, 대다수는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경우로 간주되고 있다. 친딸을 성 폭행하는 부친은 성적 도박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써 공직자, 의사, 교사, 기업체 간부, 노동자, 알콜중독자, 심지어 성직자 등도 있다(이미경, 1992).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인으로 정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딸을 유린하는가는 사례57, 사례58¹²⁾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가족원에 의해 발생한 가족내 성폭행은 주로 부친과 딸의 관계가 주를 이룬다. 가해자인 아버지와 피해자인 딸의 성 폭행은 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딸은 성폭행의 의미를 어떻게든 해석할 수 없다. 부친의 행동은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딸은 외부인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보다 더 극심한 정신적 상처를 입는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은 일반 아동의 성적 학대의 해악 그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세상에서 신뢰한 사람에게서 받은 학대라는 점에서 딸은 세상 일반에 대한 배신과 불신을 경험한다.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온 세상이

10) 20대 초반 여성이 입사 초기에 사장과 밤 11시에 시장에 갔다가 하루는 가족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고 이해와 신뢰를 가지게 한 후 다음날에 차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 반복되는 외유와 협박과 성 폭행에 이어 임신 증절을 경험한 피해자는 한국여성의 전화에 상담했으나 가족이 알지 못하게 하기를 원했다. 시설에서도 부모가 알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부모가 알지 못하도록 하고 일을 혼자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당했던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지방 회사에 다니는 20대 여직원이다. 근무중 이상한 전화를 받았으나 무시하고 퇴근하려다가 회사 앞에 세워 둔 자동차에 올라 탔다가 시골길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다. 얼굴도 모르고 당한 일인에 임신이 되었다.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소망에 따라서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한국여성의 전화, 1995).

11) 김부남은 전북 남원군 주천면 장안리에서 9세때 자신을 성폭행한, 당시 34세였던 송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21년 만에 송모씨를 살해했다. 김부남은 자신이 겪은 성폭행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다가 사춘기에 이르러 알게 되었고 전전한 사람을 만나 혼인하였으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이유를 다그치는 남편에게 처음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결국 이혼을 당했고 정신질환으로 황폐한 삶을 살다가 고통의 원인인 가해자를 살해했다. 사건 현장에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치료감호소에 있다.

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과 같이 느낄 수 있다. 자신의 행위가 근친상간인 반인륜적 행위라고 규정됨을 알게 되면서 딸은 스스로 더욱 인지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부친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딸의 인지적 세계는 혼란과 불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공식적 교육 내용과 실제 가정에서 경험한 내용이 상치되기 때문이다. 판단의 기준은 혼란되고 L양의 경우처럼 사랑의 개념도 혼란된다. 부친에 대한 신뢰는 말할 것도 없고 모친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더 증오감을 키우게 된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냉소로 자신을 파괴한다. 부친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들은 성장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사례15), 혼인한 후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며(사례15),¹³⁾ 이혼을 당하기도 한다. (사례27)¹⁴⁾

부친의 성폭행을 고발하고 집을 나와 열림터에 입소한 여성들도 대체로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 자기 훼손 증후군, 자신에 대한 수치감, 순결 상실에 대한 수치감, 자기 비하감, 피해 사실의 노출 불안, 이성애에 대한 과도한 기대 등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보고되었다(현혜순, 1995).

이러한 가족 내 성폭행을 전문가들은 개인의 인성문제, 가족 기능의 문제와 사회구조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개인의 심리에 중점을 둔 학자들은 성폭행의 원인을 어디까지나 개인의 인성문제로 보고 있다. 개인이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존재로 보고 그의 성격적 결함을 원인으로 간주한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경험한 양육환경의 특성이 타인을 학대하도록 하는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학대 받고 자라는 사람이 또 자신의 어린 자식을 학대한다는 일종의 순환적 반응으로 보는 것이다.

딸을 성폭행하는 부친은 정상심리가 아닌 병리적 이상심리자로 볼 수 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대

12) L는 21세인 대학생으로 국민학교 5학년 부터 대학교 1학년 후반까지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부친은 언변이 좋고 처세에 능하며 종교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자로 자상한 아버지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아내가 혼전에 순결을 잃었다는 이유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일삼던 부모가 불화하여 별거하게 되면서 피해자는 외갓집에 가서 몇 해를 지냈다. 부모가 다시 합가하면서부터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을 부친이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모친은 교학적이고 교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남편의 딸 폭행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해 남편과 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다. 딸이 6학년 때 임신이 되자 딸을 병원에 데려가 밤에 다니다가 강간을 당했다고하면서 딸을 증질시키고는 '너는 이미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딸에 딸의 의식까지도 지배했다. 철저한 감시 속에서 성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정망과 증오 속에서 번민하여 자살을 기도했으나 벗어날 길이 없어 공부에만 매달렸다. 심지어 수능시험을 치루기 전날까지도 싫다는 딸을 빗기고 때렸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딸을 출장시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유린하던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딸이 경찰서에 뛰어 들어가 도움을 청했다. 그후 성폭력상담소에서 개설한 열림터에 입주하였고 부친은 긴급 구속되어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개설 1주년 기념 세미나, 1995, 11-12) M의 부모는 어린 나이에 만나 결혼하였다. 모친은 부친의 잦은 외도로 가출하고 부친은 둘째 부인과도 이혼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10년간 장기 복역한 부친이 모범복역수로 출소한 후 15세인 딸과 같이 살게 되었다. 출소한 날부터 딸을 강간했다. L은 부친의 행동이 싫었지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부친의 말에 어떻게 해야할지 당혹스러웠다. 성폭행이 반복되자 딸이 울며 호소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미 버린 몸이니 같이 죽자'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둔다'면서 칼을 휘두르며 온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곤 했다. 딸이 열림터로 입소한 후에도 부친은 딸을 내 놓으려면서 행패를 부리고 다 죽이겠다고 했다.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해 긴급 구속되어 증행을 받고 복역 중이다.

13) 친부에 의해 초등학교 5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 까지 성폭행을 당했다. 말하면 죽인다는 말에 모친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중졸후 서울에 와서 취업하면서 성폭행에서 벗어났지만 혼인하여 아들을 낳은 후에도 우울증에 빠지고 남편과 불화가 심하다.

14) 모친이 서울에 취업하여 집을 떠난 후 자매 가운데 큰딸을 부친이 성폭행하여 임신, 증질시킨 후에도 딸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 부친이 고등학교 2학년인 작은 딸도 성폭행하여 작은 딸이 상담을 신청했다.

제로 부친의 행동은 광폭하고 지배적인 성격의 표현으로 일관된다. 모친은 피학대자로서 학습된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학대자와 피학자의 관계로 특징지어진다. 지배자인 남편은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딸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의 일부로 생각한다. 딸의 인격적 손상에 대한 배려는 추호도 없다. 내 소유물을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에 차 있으므로 죄의식도 없다. 아내는 남편의 횡포가 딸을 희생으로 줄어들고 단지 가정에 폭풍같은 광란이 일지 않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러한 방조 속에서 남편의 성폭력과 딸의 비명은 가정의 평화로 위장되어 묵인된다. (사례14)¹⁵⁾

둘째 성 폭행을 가족의 역기능으로 보는 학자들은 성폭력을 가족 기능의 총체적 문제로 본다. 이 관점에서는 성폭력을 행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원들간의 상호작용 자체의 역기능으로서 성폭력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을 행한 사람만을 탓할 수 없고 그 가족에는 그러한 문제를 발생하도록 하는 구조적 환경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성폭행을 가하는 사람만큼이나 그 문제의 유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모친도 원인 제공자이다. 실제로 이 관점은 앞에서 말했듯 가족주의적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관점은 다르나 가족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데 일치하기도 한다.

가학자들은 가족주의를 왜곡하고 이용해 이러한 가족내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가장으로서 자신의 욕구가 가족 내에서 충족되어야 하는데 아내가 그러한 욕구충족의 대상이 되지 못할 때에는 딸이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사례48) 가해자에게는 폭군과 같이 가장의 권한을 확대시켜 인식할 뿐 부친으로서

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의 기능이 문제 시되는 이 관점에서는 역기능적 가족에서 성장한 가족원이 또 자신의 가정을 순기능적으로 만들지 못하므로 가정의 병리적 원인이 순환된다는 순환적 원인론(Saraga, 1993)을 제기한다. 가족내 성폭력은 대를 이어 전승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성 폭행문제의 원인은 사회구조 환경에 있다는 구조주의자들의 설명이다. 빈곤 등 개인에게 좌절을 주는 사회구조가 아동을 폭행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그로 인한 여러 공격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공격행동의 한 종류로서 성폭행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는 빈곤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개인만이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지, 왜 가해자가 오랫동안 그러한 행태를 보였는지, 그리고 왜 어린이를 성폭행의 대상으로 택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넷째는 성폭행은 권력이 강한 남성이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여성과 아동을 약탈하는 것으로 보는 여성학자들의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권력의 불공정한 배분의 한 형태로서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남성의 성폭행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을 다소 수정한 다른 여성학자들은 성폭행이 폭력의 한 형태로서 남성의 권력 남용의 한 형태로서 간주하는 것이다. 남성 권력은 지배와 통제로 나타나며 여성과의 성적 관계에서도 그 권력은 지배와 통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여성뿐 아니라 아동도 그러한 권력 남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모친 역시 이러한 생활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친의 성폭력에서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될 수 없다. 김보은의 어머니는 딸을 의무인 남편이 폭행하는 것을 알기는

15) 1992년 1월 17일 충주에서 9세부터 12년 동안 의붓아버지에게 성 폭행당한 대학생 김보은과 그의 남자친구 김진관이 의부를 살해한 사건이다. 모친은 남편과 그의 친구들에게 호소하다가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딸에게 '너 혼자 참으면 집안이 편안하다'라고 설득해 왔다 한다.

했지만 남편이 늘 식칼과 쥐악을 보여주면서, '이 혼이나 고소를 생각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또한 법정에서 중학생인 딸을 성폭행했다고 남편을 고소한 부인을 외부 증으로 몰아 모녀가 갈 곳이 없어 결국 고소를 취하한 경우(이미경, 1992)에서도 모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편의 경제력과 남편에게 의존해 살던 부인의 경제적이고 사회적 무능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아내의 혼전 순결을 탓하여 별거에 들어갔다가 합가하면서 딸을 유린한 경우(사례48)에서 보듯이 성폭력의 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성 폭력은 대를 이어 순환되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원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의 역기능 속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유지와 혼인의 합법성을 고려해 적처 자신과 그 후손의 권한을 보장한 한편, 첩과의 성 관계를 묵인했다. 가문과 종통의 유지를 위해서 적처의 권한이 보장되었으므로 여성의 절개는 생명처럼 중시되었으며 실절은 사회적 죽음으로 의미화 되었던 것이다. 남성은 처와 공식적으로 가문간의 관계에 토대를 둔 관계였으며 첩과는 사적이고 애정의 관계였다. 즉 적처와는 합법적 관계이고 첩과는 개인적 관계였다. 이러한 연유로 여성과 남성간에 성에 대해서 이중적 기준을 형성했고 남성이 스스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여성관 및 이중적 성 의식은 현대인의 성 의식에 잔존해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대학생들의 성 의식의 이중성을 조사해 보았다. 여성의 순결은 중시되면서 남성의 것은 무시되는 것이라든지,

남성의 실절은 묵인되면서 여성의 실절은 중시되는 이중성과, 연애하는 여성상과 혼인할 여성상이 다르다는 이중성은 바로 그러한 전통적 의식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이중적 의식은 성 경험과 관련지워 그 의미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된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성 폭행을 실절로 의미화하므로 성폭행 후의 부적응의 심각성이 제기된다. 성 폭행 사건에 대한 의미화와 해석은 그후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되어 여성단체들이 조사한 58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 보았다.

가족원 이외의 외부인에게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도 그 사건의 의미 해석에 따라서 적응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실절을 자신의 결함으로 해석한 여성은 인지적 판단의 혼란과 부적응을 더 겪었다. 실절을 가해자의 악행으로 해석한 여성은 불운을 닦았을 뿐 그러한 성폭행의 상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특히 사회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실절을 자신의 죄로 해석하지 않도록 지도된 경우는 실절을 가해자의 잘못으로 간주하고, 가해자의 병든 인성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자신의 불행한 체험을 묻어두지 않고 그 상처를 타인에게도 경험시키지 않으려 사회제도로 예방하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실절에 대한 의미해석과 그에 따른 적응 양상은 가족원에게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전혀 달리 나타났다. 어린 시기에 부친에게서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온 경우에 사춘기 들어서면서 근친 상간이 반인륜적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공식적 교육으로 인한 인지 체계가 혼란된다. 그러한 혼란은 자기훼손증, 우울증, 성적 접촉 거부와 부부간 불화로 이어지고 많은 경우에 정신질환과 같은 건강한 인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심신을 파괴시켰다. 또한 부친의 수성(獸性)과 모친의 무능력한 방관은 곧 세상사람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였으며 극도의 절망으로 삶에 대한 의욕을 꺾었다. 부친

은 딸의 신체를 유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딸의 인격과 미래를 파괴했던 것이다. 딸은 부친의 성폭행을 어떤 의미로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절망의 늪에서 자신을 건져올릴 줄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절은 그 자체로도 큰 상처지만 그 상처를 더 깊게 파헤쳐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실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고 가족에 대한 기본 신뢰가 깨어진 자국이다.

참 고 문 헌

- 신윤옥(1992). 범죄 구성 요건의 문제. 한국여성 단체 연합 성폭력법 제정 추진특별 위원회 주최 공개토론회: **현행 성 폭력 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11-17.
- 이미경(1992). 근친상간. 한국여성 단체 연합 성폭력법 제정 추진 특별 위원회 주최 공개토론회: **현행 성 폭력 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8-34.
- 이순형(1993).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유학적 재해석. **한국논단**, 제71집, 92-119.
- 이순형(1996a). 실록의 이혼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조선조 혼인관계의 유지 원리. 미발표논문.
- 이순형(1996b). 한국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성의 이중기준. 미발표논문.
- 이인화 역(1994). **아사베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서울: 살림.
- 정종숙(1992).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의 문제점. 한국여성 단체 연합 성폭력법 제정 추진 특별 위원회 주최 공개토론회: **현행 성 폭력 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18-23.
- 한국성폭력상담소(1995a). **함께 하는 위기 센터를 위하여**. 심포지움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1995b). 열림터 개설 1주년 기념 세미나: **'내일을 여는 열림터'** 자료집
- 한국여성 개발원(1994). **성폭력 상담원 훈련자료**.
- 한국여성 단체 연합 성폭력법 제정 추진 특별 위원회 공개토론회(1992). **현행 성 폭력 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여성의 전화(1995). **여성 상담과 여성 복지**.
- 현혜순(1995). 열림터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와 운영실태.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개설1주년 기념세미나: 내일을 여는 열림터**, 15-20.
- Herrenkohl, E. C. Herrenkohl, R. C., and Toedter, L. J. (1983). Perspectives o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buse. In R. Dallos and E. M. Loughlin (eds.), **Social problems and the family**. SAGE, Publications Inc.

The Signification of Sexual Violence for Women and Their Adjustment Style

Soon hyung, Yi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ignification of sexual violence for women might influence their adjustment style after the injury. To prove this hypothesis, 58 cases of sexual violence were analyzed.

Women who regarded it as physical violences by abnormal man usually tried to overcom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amages. But those, who made it out as the loss of virginity and so blamed themselves for their indiscretion in this Confucianistic society, confronted more difficulties in their adjustment. Women who suffered sexual violence by family members could not signify it anyway in terms of their prior cognitive (belief) system. So they could not adapt themselves to surroundings and showed various symptoms of self-disintegration.

Key Words : sexual violence·loss of virginity·double standard